

공익법인의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BPO 도입방안*

김봉환** · 노희천*** · 김용수****

〈요 약〉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결산서류등 공시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 시 오류발생,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으로서 회계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 10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계관리에 어려운 점과 외부 회계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 교육훈련 부족, 회계담당인력 부족, 회계시스템 및 도구 부족,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회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법인 속성별로는 회계전담인력이 없고, 보조금을 수급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이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관리를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아웃소싱을 도입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을 위한 복식부기 기장 서비스(모델 1). 둘째,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을 위한 기장과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서비스(모델 2). 셋째,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기장과 내부통제 서비스(모델 3)이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회계 BPO 비용 부담과 서비스 품질 저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제도’와 ‘회계 BPO 제공업체 적격성 인증제도’를 필수적인 보완 제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 BPO가 단순한 기장업무 대행을 넘어, 보조금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에 외부 회계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공시 및 감사 강화의 규제중심 체계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보조금, 내부통제

* 본 논문은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겸무연구원, kimbong@snu.ac.kr, 주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rhc0401@ssu.ac.kr, 교신저자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ysk4u@ss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25년 11월 8일

1차수정일 2025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6일

I. 서 론

기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제도는 사후적으로 결산서류등¹⁾과 보조금 정산보고서²⁾의 엄격한 공시³⁾와 이에 대한 감사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회계 전문인력 확보와 내부 인력에 대한 관련 법률 및 회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산서류등 작성 및 공시업무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에 대한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공시에 대한 법적 공시기반은 확보되어 재공시 발생건수와 소요기간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지만(김형모 외 2023), 주식·연결공시·임직원 보수 등 공시 정보의 깊이와 이용성은 부족한 실정이다(전규안·박진하 2022).

현행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의 방지, 보조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자동화, 정보화하여 관리하고 있다.⁴⁾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기존 사후적 관리방안은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조미옥·노희천 2022).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확인하기 때문에 횡령, 허위문서 작성, 목적외 사용 등 부정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⁵⁾, 잘못된 보조금 집행을 정산하는 경우 허위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부정

- 1) 결산서류등에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등 현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 명세,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이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제6호).
- 2)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3)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결산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또한 같은 회계연도 중 1천만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또는 간접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국고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등을 공시해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4)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은 ‘e나라도움’이고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은 ‘보탬e’이며, ‘보조금 통합포털’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5) 감사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실시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대표 지시, 거래업체·직원과 공모) 횡령이 적발되어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 73명이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된 바 있다(감사원 보도자료, 2023.05.16.).

정한 정산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⁶⁾

또한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중 공시 및 감사 기준과 직결된 자산 규모에서 의도적인 수치 조정 행태가 존재하는 등 공익법인의 회계품질은 낮은 실정이다(강상엽 외 2022). 이에 2018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시행되어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4).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다(제23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시스템⁷⁾은 단식부기를 허용하고 있다. 한승엽 외(2021)는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이후 공익법인의 회계품질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기존 사후적 공시 및 감사 중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으로서 회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하 회계 BPO) 도입을 제안한다. 회계 BPO는 부족한 기술 확보, 비용 절감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회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외부 공급업체 또는 완전 자회사에 재할당하는 것이다(Egiyi and Alio 2020 ; Everaert et al. 2006 ; Lacity et al. 2011 ; Panigrahi and Joshi 2020). 회계 BPO의 예로는 미지급금 아웃소싱, 일반 회계, 급여 처리, 재무 등이 있다.

Williamson(1981)의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이하 TCT)에 따르면, 자산 특수성이 낮은 업무를 내부 조직(Hierarchy)으로 유지하는 것은 관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최근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강화로 인해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회계처리업무 자체는 표준화된 규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공익법인이 내부 전문회계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은 외부 전문 회계 BPO 업체를 활용할 때의 거래비용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 관점에서 볼 때, 공익법인이 회계 기능을 내부화하지 않고 회계 BPO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일 될 수 있다.

6) 사업수행 시작일이 20×1년 4월부터 12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매월 250만원씩 참여기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산출내역을 기초로 보조사업자가 지급한 후, 보조사업 인건비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하여 총 3천만원을 보조금 계좌에서 보조사업자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후 정산 검사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2024년 대구광역시 민간보조금 운용실태 특정 감사 결과 [일련번호 : 2]).

7) ‘복지로’는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등이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서비스로서, 2010년 12월 최초 개통 후, 지속적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07.08.).

그리고 Barney(1991)의 자원준거이론(Resource-Based View, 이하 RBV)에 의하면 조직의 자원이 가치 있고(Valuable), 희소하며(Rare), 모방하기 어렵고(Inimitable), 대체 불가능할 때(Non-substitutable) 비로소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공익법인의 존립 목적 달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예 :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교육 등) 수행 역량은 조직의 핵심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회계 업무는 조직 운영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수의 조직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므로 희소하거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원준거이론의 논리에 근거할 때, 공익법인은 제한된 가용 자원을 경쟁우위 창출이 어려운 비핵심 업무인 회계 기능에 투입하기보다는, 이를 외부 전문 회계 BPO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내부 자원을 핵심 역량 강화에 재배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 BPO의 장점으로 회계업무 담당 내부 직원 고용 관련 직·간접 비용 절감, 회계 기능 아웃소싱으로 절감된 자원을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 회계 BPO 제공업체의 전문 회계 역량 활용 등이 있다.

반대로 회계 BPO의 위험에는 회계 BPO 제공업체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통제력 감소, 조직에 대한 내·외부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지식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회계 데이터에 대한 보안 위험, 내부 직원들이 어떤 업무가 다음에 아웃소싱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 있다(Egiyi and Alio 2020 ; Panigrahi and Joshi 2020).

본 연구는 국내 공익법인의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방안의 비용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입전략을 제시하였다. 회계 BPO의 세 가지 유형에는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의 회계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복식부기 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BPO(모델 1),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에게 기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BPO(모델 2),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에게 기장 서비스와 내부통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BPO(모델 3)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의 공익법인 회계 BPO 모델을 도입하면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은 사전적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은 보조금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며, 대규모 공익법인은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반면에 회계 BPO 도입에 수반될 수 있는 정보보안 위험, 통제권 상실, 조직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회계 B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회계 BPO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공익법인에 회계 BPO를 도입하여 사전적으로 회계품질을 제고하려는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계 BPO 제공업체의 독립성과 적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회계 BPO 제공업체는 자기검토위험 방지를 통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동일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회계 BPO 제공업체가 보조금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산업무와 검증업무의 분리를 위해 보조금 검증업무가 금지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는 회

계 BPO 업체의 적격성에 대한 인증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인증된 회계 BPO 제공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기존 사후적 공시 및 감사 강화 등 규제적 측면에서 사전적·예방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주요국 공익법인 회계 BPO 동향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Ⅲ장에서 공익법인 현황을 검토하였다. 제Ⅳ장에서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 방안과 방안의 비용효과 분석 및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 제Ⅴ장에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주요국 공익법인 회계 BPO 동향 및 선행연구

1. 주요국 공익법인 회계 BPO 동향

공익법인은 회계 전담인력 부족, 규제 및 공시 의무 강화, 디지털 전환 압력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익법인 회계업무의 BPO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보조금 규정(Uniform Guidance)과 국세청(IRS) 신고 제도(IRS Form 990)에 의해 회계 BPO 수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⁸⁾ 미국의 모든 면세 비영리단체는 규모에 따라 Form 990, 990-EZ, 990-N 등을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재무보고 외주화의 구조적 수요를 유발한다. 미국 중·소규모 비영리단체는 전표처리, 결산, 급여·지급 관리, 감사 준비까지 포괄하는 회계 BPO 서비스와 가상 CFO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공익법인법 및 사회복지법에 기반한 외부감사 제도⁹⁾와 공인회계사 중심의 회계 BPO 구조¹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법을 적용받는 일본 비영리단체는 외부 회계감사(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 및 보고 의무가 있다. 일본의 비영리단체는 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리사(세무사)에게 장부기장, 결산 지원, 감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주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위원회(The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이하 ACNC)의 규모별 보고제도¹¹⁾와 회계기준위원회(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AASB)의 비영리 회계기준 개정¹²⁾으로 인해 회계 지원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ACNC는

8)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990>, 검색일자 : 2025.08.22.

9)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145/en>, 검색일자 : 2025.08.22.

10) <https://www.hp.jicpa.or.jp/english/accounting/independence/index.html>, 검색일자 : 2025.08.22.

11) ACNC에 의무적으로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비영리단체 수익 규모 기준이 2021-22 회계연도 이후부터 강화되었다., <https://www.acnc.gov.au/tools/topic-guides/charity-size>, 검색일자 : 2025.08.22.

12) 2021-22 회계연도 이후부터 대규모 비영리단체는 주요 경영진의 보수를 공개해야 하고, 2022-23 회계연도 이후부터 중·대규모 자선단체는 기타 특수관계자를 의무공시 해야 한다., <https://nexia.com.au/news/financial-reporting-changes-for-charities/>, 검색일자 : 2025.08.22.

비영리단체를 연간 수입 기준으로 소규모(50만 AUD 이하), 중규모(50만~300만 AUD), 대규모(300만 AUD 이상)로 구분한다. 중·대규모 비영리단체들은 외부 회계감사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 재무관리 플랫폼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표 5>는 주요국의 공익법인 회계 BPO 동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2. 선행연구

가. 공익법인 회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공익법인의 회계품질과 공시제도 등 회계관리에 관한 연구는 정책 개선과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먼저, 공익법인의 회계품질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강상엽 외(2022)는 벤포드 법칙이라는 객관적인 분석 도구를 통해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특히 공시 및 감사 기준과 직결된 자산 규모에서 의도적인 수치 조정 행태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한승엽 외(2021)는 공익법인회계기준(2018년 시행)의 도입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회계품질 개선 측면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기부자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이후 차기 기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특히 고유목적사업비율)에 대한 의존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조미옥·노희천(2022)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반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거버넌스 강화, 자료 표준화, 정보 제공의 적시성 제고, 회계전문가의 자문·정산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는 공익법인 회계투명성과도 직결되는 제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변화를 각각 실증적·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공시 강화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전규안·박진하(2022)의 연구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안하며, 공시정책과 공시양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공익법인의 공시 목적을 ‘감독’에서 ‘기부자의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공시 관리 감독 강화, 연결공시 도입, 외부감사 대상 확대, 공시양식의 국제적 기준 부합성 제고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적용 및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제안하여, 제도 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김형모 외(2023)는 공시제도 강화가 공익법인의 재공시(restatemen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전후로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 205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재공시 건수와 소요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시제도 강화와 국제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공익법인의 회계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익법인의 회계품질과 공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로 공시된 결산서류등과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적인 감사 및 감독관리 위주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회계관리 역량이 영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법인에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회계실무역량강화 체계로서 회계 BPO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모델과 기대효과를 제안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회계 BPO는 공익법인의 회계관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절약된 내부 자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공익성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회계 BPO에 대한 선행연구

회계 BPO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 동기, 결정 요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Egiyi and Alio(2020)는 회계 BPO의 이익요인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계 BPO의 이익요인으로는 비용 절감(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공간 등), 내부 자원 절약으로 고유 핵심사업 집중, 전문 서비스 활용, 계약상 책임 강화, 산업별 특화 서비스 확보 등을 제시하였고, 반면 위험요인으로 회계 BPO 업체와의 의사소통 문제, 통제력 감소, 정보 보안 위험, 조직 내 혁신 역량 및 내부 조직 신뢰도 하락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회계 BPO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Everaert et al.(2006)은 거래비용이론(TCT)과 자원준거이론(RBV)을 결합한 확장 모형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계 BPO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illiamson(1981)의 거래비용이론은 경제 조직의 연구 단위를 ‘거래(Transaction)’로 규정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선택하는 것이 조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Barney(1991)의 자원준거이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을 외부 환경이 아닌 기업 내부의 자원(Resources)에서 찾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벨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자원 결핍, 낮은 업무 빈도, 낮은 자산 특이성이 회계 BPO 강도(Intensity)를 설명하는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 결핍 변수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 중소기업의 회계 BPO 결정에 있어 내부 전문 역량의 부재가 핵심 동기임을 입증하였다.

Panigrahi and Joshi(2020)는 회계 BPO가 기업에게 비용 효율성, 전문 서비스 접근성, 운영 유연성, 정확도 향상, 사기 방지 등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함을 강조하고, 아웃소싱이 단순한 저가 노동력 활용을 넘어 고부가가치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KPO)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Lacity et al.(2011)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87편의 실증적 BPO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BPO 의사결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도출하여 BPO 의사결정 모델과 성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BPO 의사결정에는 비용 절감, 전문성 및 기술 접근, 핵심 역량 집중,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과 개선, 확장성, 신속한 제공 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BPO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 효과적 지식 공유, 파트너십 관점, 관계 특화 투자와 같은 관계적 거버넌스 요소와 계약의 상세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영리기업들이 회계 BPO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장단점과 수요기업의 의

사결정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영리기업이 아니라 회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회계 BPO가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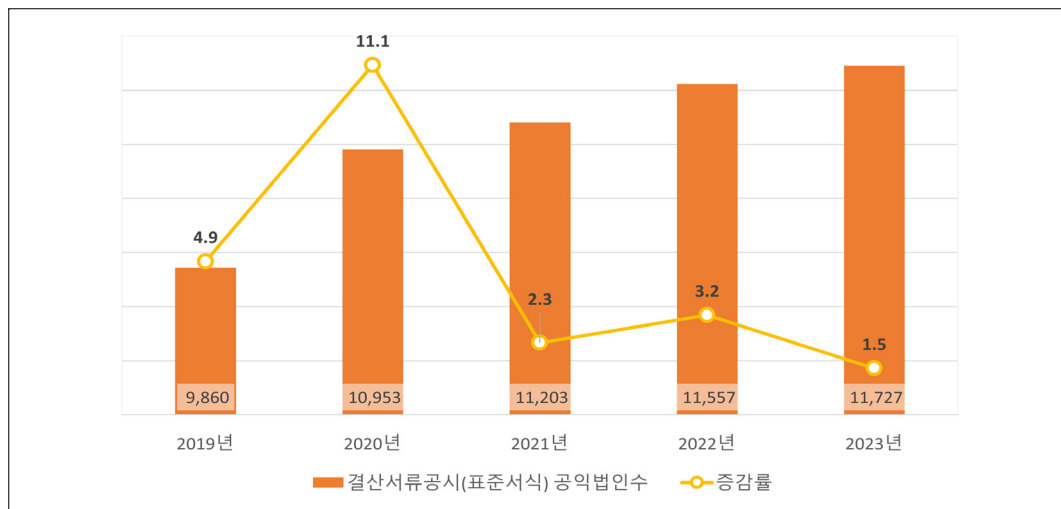
III. 공익법인 현황

1. 공익법인 추세 및 보조금 현황

연도별 결산서류공시(표준서식) 공익법인수 현황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¹³⁾ 2023년에 결산서류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수는 11,727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18.9% 증가하였다.

<그림 1> 결산서류 공시(표준서식) 공익법인수 현황

(단위 : 개수, %)



※ 출처 : Tasis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5.08.18.

13)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연도별 사업목적별 결산서류공시(표준서식) 공익법인 보조금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23년에 결산서류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보조금 금액/공익법인수)은 78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2019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2023년에 결산서류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을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은 20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2.1%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79.3% 감소하였으며, 교육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은 67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57.5% 증가하였다. 학술·장학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은 36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36.9% 증가하였으며, 예술·문화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은 35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31.4%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업목적별 결산서류공시(표준서식) 공익법인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패널 A] 전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47,033,533	56,462,211	69,498,988	91,181,786	91,737,924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9,860	10,953	11,203	11,557	11,727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4,770	5,155	6,204	7,890	7,823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1.4	8.1	20.3	27.2	-0.8
[패널 B] 사회복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23,985,645	27,126,195	30,897,021	35,152,975	6,334,532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2,413	2,880	2,988	3,070	3,084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9,940	9,419	10,340	11,450	2,054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3.9	-5.2	9.8	10.7	-82.1
[패널 C] 교육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7,184,249	8,021,479	9,255,813	9,647,194	12,472,537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1,673	1,862	1,832	1,832	1,844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4,294	4,308	5,052	5,266	6,764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13.9	0.3	17.3	4.2	28.4

〈표 1〉 연도별 사업목적별 결산서류공시(표준서식) 공익법인 보조금 현황 (계속)

[패널 D] 학술·장학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6,784,071	7,909,019	8,882,361	9,678,111	10,310,358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2,514	2,642	2,696	2,733	2,790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2,699	2,994	3,295	3,541	3,695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8.6	10.9	10.1	7.5	4.4
[패널 E] 예술·문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1,821,070	2,168,725	2,421,516	2,866,263	3,275,475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670	745	784	873	917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2,718	2,911	3,089	3,283	3,572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16.1	7.1	6.1	6.3	8.8
[패널 F] 의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156,488	293,693	791,430	1,480,746	1,873,607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1,023	1,105	1,102	1,109	1,099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153	266	718	1,335	1,705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27.6	73.8	170.2	85.9	27.7
[패널 G] 기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금액	7,102,010	10,943,099	17,250,847	32,356,497	57,471,414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수	1,567	1,719	1,801	1,940	1,993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	4,532	6,366	9,578	16,679	28,837
공익법인당 보조금 증감률	-12.8	40.5	50.5	74.1	72.9

자료 : TASIS 국제통계포털

의료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은 17억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1,014.5%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익법인당 보조금 금액은 288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2.9%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536.3% 증가하였다.

2. 설문조사를 통한 공익법인 회계관리 현황 및 회계 BPO 도입에 대한 인식 파악

본 연구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회계 BPO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최종 표본크기는 109개이다. <표 2>는 공익법인 설문조사 표본 구성이다. 전체 표본 109개 중 회계전담인력 없음은 42개(비중 38.5%), 회계전담인력 있음은 67개(비중 61.5%)이다. 보조금 미수급은 65개(비중 59.6%), 수급은 44개(비중 40.4%)이다. 외부회계 미감사 18개(비중 16.5%), 외부회계감사 91개(83.5%)이다. 본 설문조사의 최종 표본크기 109개 중 외부회계감사¹⁴⁾ 비중은 83.5%로 나타나서, 2022년 기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외부회계감사 비중 31%¹⁵⁾에 비해 약 2.7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표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익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영세한 미감사 공익법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2> 공익법인 설문조사 표본 구성

(단위 : 개수, %)

전체 공익법인수	회계전담인력 유무		보조금 수급 여부		외부회계감사 여부	
	없음	있음	미수급	수급	미감사	감사
109 (100)	42 (38.5)	67 (61.5)	65 (59.6)	44 (40.4)	18 (16.5)	91 (83.5)

주 : 괄호 안은 전체 공익법인수 중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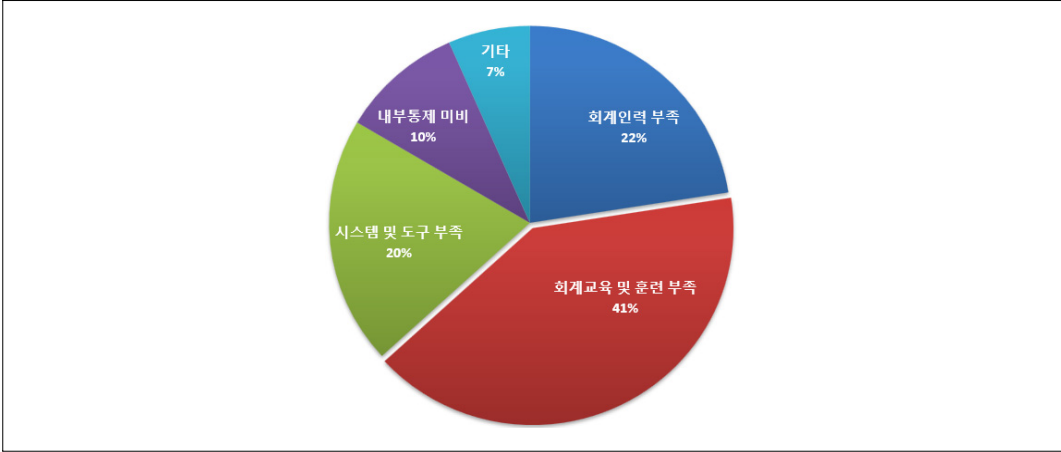
가. 공익법인 회계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2>는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회계교육 및 훈련부족이 4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회계인력 부족 22%, 시스템 및 도구 부족 20%, 내부통제 미비 10%, 기타 7% 순으로 나타났다.

14) 공익법인(종교법인과 학교법인 제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①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제4항).

15) 딜사이트 경제TV 2023.03.08. 기사, “[세상 돌아보기] 여전히 부실한 공익법인 외부감사”, <https://dealsitetv.com/articles/93952>, 검색일자 : 2025.08.20.

〈그림 2〉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 3>은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별 체감 수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이다.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3.58(표준편차 0.96),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3.98(표준편차 0.83),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4.22(표준편차 0.98),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3.59(표준편차 1.08)로 나타났다.

〈표 3〉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3.58	0.96	4.84***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3.98	0.83	10.97***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4.22	0.98	10.29***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3.59	1.08	4.59***

주 1 : 리커트 5점 척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어렵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이 높은 것임

주 2 : t값과 유의수준(p값)은 각 어려운 이유별 평균 점수와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위수인 보통이다 3점을 비교한 일표본 t검정 분석 결과임

주 3 : ***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그리고 각 항목별 평균 점수가 리커트 5점 척도 중위수인 보통이다 3점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일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문에 응답한 공익법인들은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실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체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회계전담인력 유무, 보조금 수급 여부, 외부회계감사 여부로 구분한 후, 공익법인이 각 속성에 따라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체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총 4개의 각 이유별 체감 수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항목으로 설문하였으며, <표 4>는 공익법인 속성별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¹⁶⁾ 먼저, [패널 A]는 회계전담인력 유무에 따른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이다.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전담인력 있음 3.49(표준편차 0.89), 회계전담인력 없음 3.69(표준편차 1.04)로 나타났다.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전담인력 있음 3.90(표준편차 0.85), 회계전담인력 없음 4.09(표준편차 0.78)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공익법인이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결과이다.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전담인력 있음 4.10(표준편차 1.02), 회계전담인력 없음 4.39(표준편차 0.92)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공익법인이 회계시스템 부재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전담인력 있음 3.61(표준편차 1.12), 회계전담인력 없음 3.57(표준편차 1.03)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전담인력이 있는 공익법인이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패널 B]는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른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이다.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보조금 미수급 3.53(표준편차 0.92), 보조금 수급 3.63(표준편차 1.01)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보조금 미수급 3.96(표준편차 0.75), 보조금 수급 4.00(표준편차 0.92)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교육 및 훈련기회 부족으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전체 표본을 각 속성별로 구분한 2개 하위 집단 간 리커트 5점 척도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이 미수급 공익법인에 비해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결과만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보조금 미수급 4.15(표준편차 0.88), 보조금 수급 4.32(표준편차 1.12)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회계시스템 부재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특히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보조금 미수급 3.31(표준편차 0.98), 보조금 수급 3.97(표준편차 1.10)이고,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2.63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패널 C]는 외부회계감사 여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이다.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외부회계 미감사 3.57(표준편차 0.79), 외부회계감사 3.58(표준편차 0.98)로 나타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외부회계 미감사 3.86(표준편차 0.86), 외부회계감사 4.00(표준편차 0.82)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 교육 및 훈련기회 부족으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외부회계 미감사 3.82(표준편차 0.87), 외부회계감사 4.29(표준편차 0.99)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 회계시스템 부재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외부회계 미감사 3.20(표준편차 0.79), 외부회계감사 3.66(표준편차 1.11)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공익법인 속성별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패널 A] 회계전담인력 유무							
구분	회계전담인력 있음 (N=67)			회계전담인력 없음 (N=42)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 편차	t값	평균 (B)	표준 편차	t값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3.49	0.89	3.24***	3.69	1.04	3.58***	0.20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3.90	0.85	7.54***	4.09	0.78	8.22***	0.19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4.10	1.02	6.89***	4.39	0.92	8.04***	0.29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3.61	1.12	3.50***	3.57	1.03	2.93***	-0.04

〈표 4〉 공익법인 속성별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계속)

[패널 B] 보조금 수급 여부

구분	보조금 미수급 (N=65)			보조금 수급 (N=44)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 편차	t값	평균 (B)	표준 편차	t값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3.53	0.92	3.28***	3.63	1.01	3.51***	0.10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3.96	0.75	8.75***	4.00	0.92	6.81***	0.04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4.15	0.88	8.32***	4.32	1.12	6.22***	0.17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¹⁾	3.31	0.98	1.97*	3.97	1.10	4.82***	0.66

[패널 C] 외부회계감사 여부

구분	외부회계 미감사 (N=18)			외부회계감사 (N=91)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 편차	t값	평균 (B)	표준 편차	t값	
회계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및 공시의 어려움	3.57	0.79	1.92	3.58	0.98	4.46***	0.01
회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3.86	0.86	3.71***	4.00	0.82	10.32***	0.14
회계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없이 수작업 회계업무를 하는 어려움	3.82	0.87	3.11**	4.29	0.99	9.93***	0.47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투명한 회계처리의 어려움	3.20	0.79	0.80	3.66	1.11	4.58***	0.46

주 1) : 보조금 미수급과 보조금 수급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2.63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

주 1 : N=표본 크기

주 2 : 리커트 5점 척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어렵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익법인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이 높은 것임

주 3 : t값과 유의수준(p값)은 공익법인 속성에 따라 구분된 하위표본 내에서 각 어려운 이유별 평균 점수와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위수인 보통이다 3점을 비교한 일표본 t검정 분석 결과임

주 4 : ***, **, *는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공익법인,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관리를 더 어려

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익법인에 요구되는 엄격한 법규 준수를 공익법인 내부 역량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표 5>는 공익법인의 회계 BPO 도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¹⁷⁾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3.16(표준편차 1.17),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3.71(표준편차 0.86)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항목별 평균 점수가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위수 보통이다 3점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일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설문항목만 1%의 유의수준에서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익법인들은 회계 BPO를 도입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공익법인의 회계 BPO 도입 인식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3.16	1.17	1.38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3.71	0.86	8.54***

주 1 : 리커트 5점 척도는 매우 부정적(전혀 없다) 1점부터 매우 긍정적(매우 높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익법인이 회계 BPO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임

주 2 : t값과 유의수준(p값)은 각 항목별 평균 점수와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위수인 보통이다 3점을 비교한 일표본 t검정 분석 결과임

주 3 : ***은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전체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회계전담인력 유무, 보조금 수급 여부, 외부회계감사 여부,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 고저로 구분한 후 공익법인의 각 속성에 따른 회계 BPO 도입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 5점 척도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¹⁸⁾

먼저 [패널 A]는 회계전담인력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전담인력 있음 3.16(표준편차 1.23), 회계전담인력 없음 3.16(표준편차 1.08)으로 나타나서 차이가 없었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

17) 공익법인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시 고려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18) 다만, 회계 BPO 도입 인식 2개 설문항목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값이 공익법인 속성별로 구분한 2개 하위표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전담인력 있음 3.70(표준편차 0.82), 회계전담인력 없음 3.71(표준편차 0.94)로 나타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패널 B]는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 BPO 도입 인식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보조금 미수급 3.15(표준편차 1.16), 보조금 수급 3.18(표준편차 1.19)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BPO 도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보조금 미수급 3.68(표준편차 0.94), 보조금 수급 3.75(표준편차 0.75)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BPO 도입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의 경우 보조금 집행 관리 및 보조금 정산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보조금 미수급 공익법인보다 회계 BPO 도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패널 C]는 외부회계감사 여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외부회계 미감사 3.33(표준편차 1.05), 외부회계감사 3.13(표준편차 1.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회계 미감사 공익법인이 BPO 도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외부회계 미감사 3.61(표준편차 1.20), 외부회계감사 3.73(표준편차 0.79)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 BPO 도입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외부회계감사 여부에 따른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외부회계 미감사 공익법인의 경우 규모가 적어 내부 회계역량이 낮아 회계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BPO 도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내부 회계담당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회계 BPO 도입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패널 D]는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 고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이 낮은 경우 3.00(표준편차 1.02), 체감수준이 높은 경우 3.22(표준편차 1.22)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회계 BPO 도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은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이 낮은 경우 3.55(표준편차 0.87),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이 높은 경우 3.76(표준편차 0.8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회계관리어려움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BPO 도입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6〉 공익법인 속성별 회계 BPO 도입 인식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패널 A] 회계전담인력 유무							
구분	회계전담인력 있음 N=67)			회계전담인력 없음 N=42)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 편차	t값	평균 (B)	표준 편차	t값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3.16	1.23	1.04	3.16	1.08	0.90	0.00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3.70	0.82	7.03***	3.71	0.94	4.90***	0.01
[패널 B] 보조금 수급 유무							
구분	보조금 미수급 (N=65)			보조금 수급 (N=44)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 편차	t값	평균 (B)	표준 편차	t값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3.15	1.16	1.00	3.18	1.19	0.94	0.03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3.68	0.94	5.82***	3.75	0.75	6.63***	0.07
[패널 C] 외부회계감사 여부							
구분	외부회계 미감사 (N=18)			외부회계감사 (N=91)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 편차	t값	평균 (B)	표준 편차	t값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3.33	1.05	1.23	3.13	1.19	1.01	-0.20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3.61	1.20	2.17**	3.73	0.79	8.76***	0.12
[패널 D]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 고저							
구분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 낮음 ¹⁾ (N=29)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 높음 ¹⁾ (N=80)		평균 차이 (B)-(A)		
	평균 (A)	표준편차	평균 (B)	표준편차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3.00	1.02	3.22	1.22	0.22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	3.55	0.87	3.76	0.86	0.21		

주 1) : 회계관리어려움에 대한 4개 설문항목의 각 리커트 5점 척도값 평균이 3.5 이상이면 회계관리어려움 체감수준 높음, 3.5 미만이면 낮음으로 구분함

주 1 : N=표본 크기

주 2 : 리커트 5점 척도는 매우 부정적(전혀 없다) 1점부터 매우 긍정적(매우 높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익법인이 회계 BPO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임

주 3 : t값과 유의수준(p값)은 공익법인 속성에 따라 구분된 하위표본 내에서 각 항목별 평균 점수와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위수인 보통이다 3점을 비교한 일표본 t검정 분석 결과임

주 4 : ***, **는 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IV.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 방안

1. 공익법인 회계 BPO 세 가지 유형 모델 제안

본 연구가 실시한 공익법인의 속성에 따른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을 제안한다.

가. [회계 BPO 모델 1]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에 복식부기 기장서비스 제공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은 회계전담인력이 있는 공익법인에 비해 회계담당인력 부족, 회계 교육훈련 부족, 회계시스템 부재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은 회계전담인력이 있는 공익법인이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 BPO 모델 1은 내부 회계전담인력 확보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에 회계 BPO를 도입하여 외부 회계전문역량을 활용한 복식부기 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회계 BPO 모델 1의 업무 범위는 일일 거래내역을 입력 및 기록하는 기본 회계업무 수행, 월별/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결산서류등 작성 및 공시업무 등이다.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에 회계 BPO 모델 1을 적용하면 회계 오류가 감소하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회계 BPO 모델 2]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에 기장+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서비스 제공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이 미수급 공익법인에 비해 회계담당인력 부족, 회계 교육훈련 부족, 회계시스템 부재,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는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2.63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계 BPO 모델 2는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에 회계 BPO를 도입하여 기장업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다. 회계 BPO 모델 2의 업무 범위는 기장업무, 보조금 사용내역 분석 및 지출 보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정산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증빙자료 첨부 및 서류 검토 등이다.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에 회계 BPO 모델 2를 적용하면 공익법인의 회계관리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 [회계 BPO 모델 3]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에 기장+내부통제 서비스 제공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대규모 공익법인은 미감사 공익법인에 비해 회계담당인력 부족, 회계 교육훈련 부족, 회계시스템 부재,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미비로 인한 회계관리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BPO 모델 3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에 회계 BPO를 도입하여 기장업무와 내부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내부통제는 위험 완화, 규제 준수 강화,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촉진,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재무 보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다양한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⁹⁾ 내부통제 설계·운영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국제적 표준은 COSO²⁰⁾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로서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의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 BPO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며 내부통제의 일부를 외부 서비스조직에 의존할 경우 내부통제 목적 달성 여부를 별도의 증빙(SOC 보고서²¹⁾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²²⁾

회계 BPO 모델 3의 업무 범위는 기장업무, 자금 유출·입 프로세스 점검, 재무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 모니터링, 회계 오류 및 부정 방지 시스템 수립, 외부감사 대응 전략 수립 등이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회계 BPO 제공업체가 대규모 공익법인의 내부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교육 및 회계투명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의 재무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익법인에 회계 BPO 모델 3을 적용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19) <https://www.pwc.fi/en/services/risk-assurance/internal-control.html>, 검색일자 : 2025.08.21.

20) COSO란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의 약자로서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가 공동 설립한 조직이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1) SOC 보고서는 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Report의 약자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yandconsulting/223654788311>, 검색일자 : 2025.08.22.

22) <https://www.coso.org/guidance-on-ic?utm>, 검색일자 : 2025.08.22.

2.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 비용효과 분석

가. 회계 BPO 모델 1(소규모 영세공익법인 복식부기 기장서비스 제공) 도입 비용효과 분석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은 회계전문인력을 고용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인력이 없거나(설문조사 전체 표본의 2.8% 비중) 인사·총무담당자가 회계업무를 겸직(설문조사 전체 표본의 35.8% 비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내부 회계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은 회계실무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에게 복식부기 기장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 BPO 모델 1을 도입하면 외부 회계전문역량을 활용한 재무정보 작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이 사전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의 회계업무 부담 감소로 절감된 내부 자원을 공익법인의 고유핵심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회계 BPO 모델 1을 도입하는 경우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이 외부 회계전문역량에 의해 작성되므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 공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비용이 절감되어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계 BPO 모델 1의 추정 도입 비용은 월 15만원~월 30만원이다. 최저 월 15만원은 2025년 현재 법인사업자에 대한 회계(세무) 아웃소싱 기장료 하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고 월 30만원은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비용 부담 의향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부록 [그림 B] 참고), 가장 많은 응답(60%)을 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였다.

나. 회계 BPO 모델 2(기장+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서비스 제공) 도입 비용효과 분석

현행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는 보조금이 이미 집행된 이후에 사후 검토만 가능하므로 사전적으로 보조금 부정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 허위문서 작성,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허위 영수증 및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한 조직적인 횡령 및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²³⁾ 만일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공익법인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에 기장업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 BPO 모델 2를 도입하면 회계투명성 제고, 보조금 집행관리 개선, 업무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는 독립적인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한 자금집행의 객관적 검증으로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은 보조금 집행 시 적격 증빙서류 구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감시가 아닌 사전 예방적 통제 기능 수행으로

23) 감사원 보도자료, 2023.05.16.

가능하며, 업무효율성 증대는 내부 회계업무 부담이 감소하므로 공익법인 내부 자원을 공익법인 본연의 핵심업무 수행에 집중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회계 BPO 모델 2의 도입효과가 제대로 달성되면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보조금 정산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정부의 회계 및 보조금 관리비용이 절감되어 재정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03.19.)에 의하면 2024년에 630건, 총 493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사이에서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도별 부정징후 점검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와 적발액은 2018년 18건 1.7억원, 2019년 154건 25억원, 2020년 132건 31.5억원, 2021년 231건 34.8억원, 2022년 260건 98.1억원, 2023년 493건 699.8억원, 2024년 630건 493억원이다. 따라서 회계 BPO 모델 2가 도입되어 사전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2024년 기준 약 493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회계 BPO 모델 2의 추정 도입 비용은 월 70만원~100만원이다. 최저 월 70만원은 외부 회계 아웃소싱 도입 비용 부담 의향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번째로 많은 응답(5%)을 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고 월 100만원은 동일 설문조사 결과 3번째로 많은 응답(11%)을 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였다(부록 [그림 B] 참고). 또한 월 70만원~100만원의 비용 수준은 2025년 현재 기장(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사내 경리 직원이 하던 업무(세금계산서 발행, 이체 리스트 작성 등)까지 모두 맡기는 '경리 아웃소싱' 비용 수준²⁴⁾과 유사하다. 다만, 회계 BPO 모델 2의 추정 도입 비용은 공익법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보조금 항목에 추가하여 공익법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다. 회계 BPO 모델 3(대규모 공익법인에 기장+내부통제 서비스 제공) 도입 비용효과 분석

대규모 공익법인은 중소기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방대하여 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거래가 복잡하므로 회계 오류나 부정 및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된 내부통제가 중요하다. 내부통제는 공익법인의 유무형 자산을 사기, 오용 및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자산 보호 도구이며, 사기를 억제하고 탐지할 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공익법인에 기장업무와 내부통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회계 BPO 모델 3을 도입하면 회계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AI 및 클라우드 기반 회계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시간 재무 데이터 관리 및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현되어 부정 및 자금 유용이 사전에 방지되고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정부입장에서는 대규모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회

24) <https://www.grfriends.com/tf/price.php>, 검색일자 : 2025.12.05.

계 BPO 모델 3을 도입하면 강화된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현으로 인해 횡령이나 부정이 감소되어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 및 횡령 감시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 BPO 모델 3의 도입 비용은 내부통제 초기 구축비용과 연간 운영·유지비용을 모두 추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규모 및 유형, 사업 복잡도, 기존 시스템 수준, 구축 방식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진다. 내부통제 비용에 대해 공익법인 유형만 고려해도 예술·문화의 경우 공연·전시 예산, 학술·장학의 경우 연구비·장학금 관리, 사회복지의 경우 정부보조금 규모·시설운영인력, 교육의 경우 학생수·예산규모, 의료의 경우 진료 수입, 채고·약품 관리 수준 등 각 유형별 주요 비용 결정 요인이 상이하다. 내부통제 초기 구축 비용은 1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법인 유형별 표준 내부통제 구축 비용을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전액 부담하며, 공익법인 유형별 내부통제 초기 구축비용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들은 회계바우처 제도로 구축된 유형별 표준 내부통제를 각 공익법인의 현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는 비용과 연간 운영·유지비용만 부담시키며, 이 비용은 월 200만원~250만원으로 추정한다. 다만, 회계 BPO 모델 3의 추정 도입 비용을 모두 공익법인에게 부담시키면 공익법인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공익법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제도의 예산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절감되는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 예산을 재배정한다.

<표 7>은 세 가지 유형의 각 회계 BPO 모델별 도입 비용효과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별 도입 비용효과 분석

구분	서비스 형태	도입 비용 추정 ¹⁾	도입 기대효과
회계 BPO 모델1	소규모 영세 공익법인 대상 복식부기 기장서비스	• 월 15만원~30만원	• 회계 오류 감소 및 재무보고 신뢰성 제고 •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의 회계업무 부담 경감 및 고유핵심사업 집중 •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 수준 향상으로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 비용 절감
회계 BPO 모델2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 대상 기장+보조금 집행·정산 서비스	• 월 70만원~100만원 • 월 30만원 초과 금액은 보조금 항목에 포함시켜 공익법인의 비용부담 절감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강화 • 회계투명성 및 재무보고 신뢰성 제고 • 사전 예방적 통제 기능 확보로 부정 방지 • 내부 자원 효율화로 고유핵심사업 집중 • 정부의 사후 회계 및 보조금 관리·감독 비용 절감

〈표 7〉 세 가지 유형의 회계 BPO 모델별 도입 비용효과 분석 (계속)

구분	서비스 형태	도입 비용 추정 ¹⁾	도입 기대효과
회계 BPO 모델3	대규모 공익 법인 대상 기장+내부통제 서비스	• 월 200만원~250만원 • 월 100만원 초과 금액은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의 비용부담 절감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절차 강화 • 부정·횡령 사전 예방 및 재무정보 신뢰성 향상 • AI·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재무관리 가능 • 정부의 사후 부정·횡령 감시 비용 절감

주 1) 2025년 현재 법인사업자에 대한 회계(세무) 아웃소싱 비용 수준과 본 연구의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비용 부담 의향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부록 [그림 B] 참고)를 고려하여 저자가 직접 추정함.
자료 : 저자 작성

3.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 전략

가. 공익법인 회계 BPO 모델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 방안

본 연구가 제안한 세 가지 유형의 공익법인 회계 BPO 모델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에는 정보보안 및 기밀 유출 위험, 내부 통제력 상실, 조직 신뢰 저하가 있다. 먼저, 회계 BPO는 외부 업체가 공익법인의 재무 및 후원자 정보에 접근하므로 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BPO 계약 시 서비스 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에 정보보안 조항을 의무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된 회계 플랫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회계 BPO 제공업체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을 정부 차원에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내부 회계인력이 없이 회계 BPO 제공업체에 전적으로 회계업무를 의존할 경우 공익법인의 자체적인 회계관리 역량이 소실될 위험이 있다. 회계 BPO를 도입하더라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공익법인 경영진에게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 BPO 제공업체는 단순 기장뿐만 아니라 분기별 경영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 이사회가 재무상태를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SLA에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 KPI)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회계 BPO 제공업체가 KPI 미달성 시 서비스 비용 차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통해 외부 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은 내부 직원들에게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 BPO 도입이 ‘인력 감축’이 아닌 ‘핵심 역량 집중’을 위한 전략임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 특히 직무전환을 통해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기장 및 전표입력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계 BPO 도입 후에는 재무데이터 분석, 후원자 관리 및 모금전략 수립, 사업성과 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무재설계 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

나. 공익법인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 도입

공익법인에 회계 BPO를 도입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신뢰성은 회계 BPO 제공업체들의 서비스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회계 BPO 제공업체에 대한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를 제안한다. 참고모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이다.²⁵⁾

공익법인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은 첫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공인회계사 보유 수, 둘째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 여부,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구축 여부이다. 제도의 운영 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공익법인 회계 BPO 제공업체를 인증한다. 공익법인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내에 조항을 신설하여 회계 BPO 제공업체의 자격 요건(전문성, 독립성, 보안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비용을 지원(공익법인 회계바우처 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익법인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를 통해 독립성과 적격성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은 회계 BPO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공익법인의 사전적 회계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다. 회계 BPO 도입과 공익법인 내부 회계인력 양성의 병행

소규모 영세공익법인을 위한 회계 BPO 모델 1의 경우 회계 BPO 활용만으로도 공익법인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품질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회계 BPO 모델 2(보조금 수급 공익법인)과 모델 3(외부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보조금 정산·관리 및 내부 통제서비스의 외부 회계 전문기관 활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익법인 내부 회계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계 BPO 모델 2와 모델 3에서 회계 BPO 제공업체의 역할은 단순 결산업무 대행이 아니라 횡령 및 부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구축에까지 이른다. 그런데 내부통제업무는 본연적으로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익법인 내부 회계인력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공익법인 내부역량을 축적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또한 공익법인이 내부통제업무를 전적으로 회계 BPO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경우, 회계 BPO 서비스 시장 상황에 따라 회계 BPO 서비스 가격변동 및 회계

25)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와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자격 등을 부여하며, 인증 대상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체나 비영리 기관으로 고용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기여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고, 핵심 요건은 사회적 목적의 명시성,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사회적 영향의 측정 가능성으로 구성된다.

출처 : <https://rise.or.kr:452/sub01/sub02.php>, 검색일자 : 2025.12.05.

BPO 제공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 과부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계 BPO 도입과 공익법인 내부 회계 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라. 정부부처 주관 공익법인 회계교육프로그램 운영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익법인들이 회계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41%를 차지한 회계교육 및 훈련부족이었다. 하지만 운영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이 내부 회계인력의 전문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익법인 운영 및 관리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부처 주관으로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공익법인 내부 회계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3단계 공익법인 회계 BPO 유형별로 적합한 수준의 회계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진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²⁶⁾ 등을 벤치마크하여, 공익법인 내부회계인력들에게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회계전문 지식의 체계적 습득과 우수사례(best practices) 확산을 촉진하며, 공익법인 회계 실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집단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익법인 회계BPO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회계 BPO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V. 결 론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공시 오류와 보조금 부정 집행 및 자금 유용의 문제가 공익법인 내부 회계역량의 구조적 결핍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주로 사후적 공시와 감사 강화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회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전담인력이 없는 공익법인,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관리를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익법인에 요구되는 엄격한 법규 준수를 공익법인 내부 역량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익법인들

2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계교육이다. 2025년에는 총 4차에 걸친 오프라인 교육과 ‘회계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을 수강하여 21시간(3일)의 교육시간을 인정받는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kipf.re.kr/bbs/gafsc_center_Notice/view.do?nttId=B0000000020551Xg1oX3b, 검색일자 : 2025.11.03.

은 외부 회계아웃소싱을 도입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수급한 공익법인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이 그렇지 않은 공익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회계아웃소싱을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예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사전적 회계투명성 제고 수단으로서 세 가지 유형의 차별화된 회계 BPO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회계 BPO 모델 1’은 회계전문인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 공익법인에게 복식부기 기장서비스를 제공하여 회계정보의 기초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회계 BPO 모델 2’는 보조금 수급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기장과 보조금 집행관리 및 보조금 정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회계정보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회계 BPO 모델 3’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대규모 공익법인에게 기장과 내부통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 및 자금 유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 회계 BPO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고,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계 BPO 도입 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가장 많은 60%의 공익법인이 월 30만원 이하로 나타나서, 실제 회계 BPO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회계 BPO 도입으로 인해 사전적으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정부는 그 재원을 활용하여 ‘공익법인 회계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회계 BPO 도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회계 BPO 시장을 조성하고 공익법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공적인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익법인 회계 BPO 도입에 따른 정보보안 위험, 통제권 상실, 조직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준 계약(SLA) 및 핵심성과지표(KPI)의 의무화, 내부 인력의 고부가가치 직무 전환이다. 둘째,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회계 BPO 제공업체 인증제도’는 회계 BPO 서비스 공급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회계 BPO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의 자체 회계역량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 내부 회계인력 양성정책 병행이다. 내부통제업무는 본연적으로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내부 회계역량을 축적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넷째, 정부부처 주관 공익법인 회계교육프로그램 운영이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공익법인이 자체 회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부처 주관으로 회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공익법인 내부 회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조사 표본크기 109개 중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비중(83.5%)이 2022년 기준 전체 공익집단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비중(3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 이슈에 민감하고 설문에 응답할 여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익법인들이 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영세한 미감

사 공익법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공익법인 회계 BPO 모델들은 단순한 외부 위탁 차원을 넘어 사전적으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사후적 공시 및 감사 강화 등 주로 규제적 측면의 회계투명성 제고 정책에서 회계 BPO를 활용하는 사전적·예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AI 및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회계시스템과 결합한 확장형 회계 BPO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운영적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심화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공익법인의 회계 품질을 고도화하고, 재정건전성과 공공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감사원 보도자료. 2023.05.16. “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회계담당자 등 73명 수사의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03.19. “유령회사, 허위계약, 라벨 같이 등 거액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김형모·박진하·박경호. 2023. “공익법인 공시제도 강화가 공익법인의 제공시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41권 제4호 : 163-19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07.08. “이제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전규안·박진하. 2022.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31권 제5호 : 163-192.
- 조미옥·노희천. 2022.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 : 1-33.
- 한승엽·박선영·조재희. 2021.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과 공익법인 회계품질 및 기부자 기부 의사결정 변화”. 회계정보연구 제39권 제4호 : 51-87.
- Barney, J.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 99-120.
- Egiyi, M. A., and F. Alio. 2020. Outsourcing Accounting Functions : Risks and Benefit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Management Science Research* 4(10) : 3-7.
- Everaert, P., G. Sarens, and J. Rommel. 2006. Outsourcing of Accounting Tasks in SMEs : An extended TCE Model. *Working Paper* : 1-37.
- Lacity, M. C., S. Solomon, A. Yan, and L. P. Willcocks. 2011.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studies :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26 : 221-258.
- Panigrahi, A., and V. Joshi. 2020. Outsourcing-The Modern Trend of Accounts Management. *WAFFEN-UND KOSTUMKUNDE JOURNAL* : 268-283.
- Williamson, O. 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3) : 548-577.
-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 딜사이트 경제TV. 2023.03.08. “[세상 돌아보기] 여전히 부실한 공익법인 외부감사”.

A Study on the Adoption of Account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to Enhance Ex-ante Accounting Transparency in Public-interest Corporations*

Bong-Hwan Kim** · Hee Chun Roh*** · Yong-Soo Kim****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as an ex-ante measure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This approach aims to address issues such as errors in financial disclosures and subsidy settlements, as well as deficiencies in internal controls, which arise from structural constraints inherent in the accounting operations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09 public-interest corporations to identify difficulties in accounting management and to analyze perceptions regarding external accounting outsourc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se organization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accounting management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including insufficient accounting education and training, a shortage of dedicated accounting personnel, inadequate accounting systems and tools, and a lack of internal control and audit systems. Furthermore, an analysis based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public-interest corporations without dedicated accounting staff, those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and those subject to external audits experienced relatively greater difficulties in accounting managemen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nticipate that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ccounting outsourcing woul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The study suggests three tailored Accounting BPO models :

Model 1 : Double-entry bookkeeping for small-scale public-interest corporations.

* This paper was researched with the support of Samil Accounting Corporation's research service, and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ervice report.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kimbong@snu.ac.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rhc0401@ssu.ac.kr, Corresponding Author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ysk4u@ssu.ac.kr, Co-author

Model 2 : Bookkeeping and subsidy execution management and settlement service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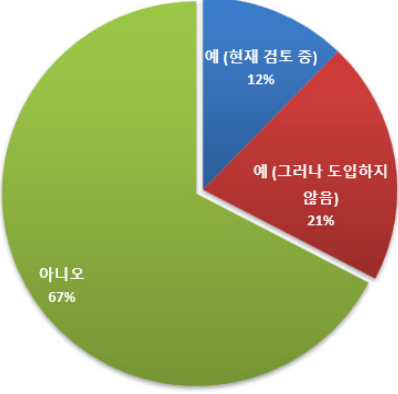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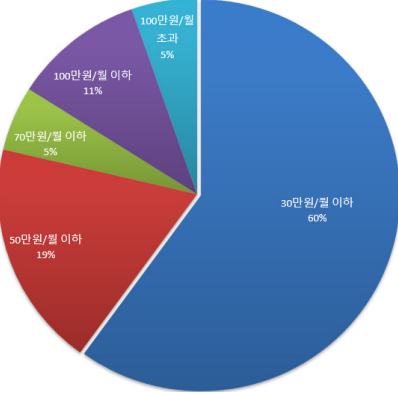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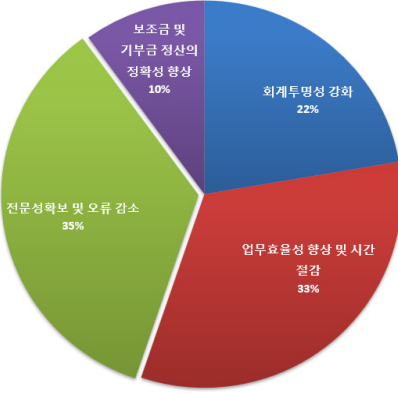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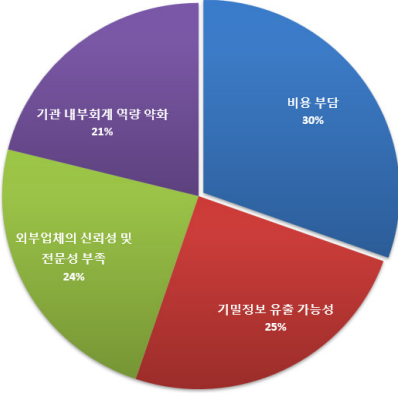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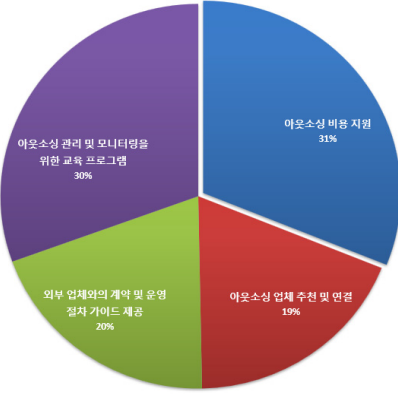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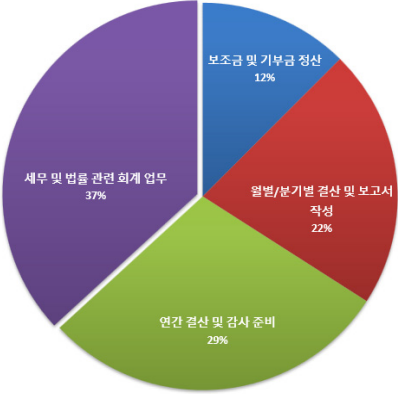
Model 3 : Bookkeeping and internal control services for large-scale public-interest corporations

To mitigate costs and ensure quality, the study recommends a government-led “Accounting Voucher System” and a “Accounting BPO Provider Certification System.” Ultimately, Accounting BPO enables a transition from an ex-post regulatory framework to an ex-ante, preventative system.

〈Key words〉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ccounting Transparency,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Government Subsidies, Internal Control

〈부 록〉

〈그림〉 공익법인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시 고려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A]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검토 여부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아니오</td><td>67%</td></tr><tr><td>에 (그러나 도입하지 않음)</td><td>21%</td></tr><tr><td>에 (현재 검토 중)</td><td>12%</td></tr></tbody></table>	항목	비율	아니오	67%	에 (그러나 도입하지 않음)	21%	에 (현재 검토 중)	12%	[그림 B]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비용 부담 의향 수준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30만원/월 이하</td><td>60%</td></tr><tr><td>50만원/월 이하</td><td>19%</td></tr><tr><td>100만원/월 이하</td><td>11%</td></tr><tr><td>100만원/월 초과</td><td>5%</td></tr></tbody></table>	항목	비율	30만원/월 이하	60%	50만원/월 이하	19%	100만원/월 이하	11%	100만원/월 초과	5%		
항목	비율																				
아니오	67%																				
에 (그러나 도입하지 않음)	21%																				
에 (현재 검토 중)	12%																				
항목	비율																				
30만원/월 이하	60%																				
50만원/월 이하	19%																				
100만원/월 이하	11%																				
100만원/월 초과	5%																				
[그림 C]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시 주요 기대 효과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전문성 확보 및 오류 감소</td><td>35%</td></tr><tr><td>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간 절감</td><td>33%</td></tr><tr><td>회계투명성 강화</td><td>22%</td></tr><tr><td>보조금 및 기부금 정산의 정확성 향상</td><td>10%</td></tr></tbody></table>	항목	비율	전문성 확보 및 오류 감소	35%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간 절감	33%	회계투명성 강화	22%	보조금 및 기부금 정산의 정확성 향상	10%	[그림 D]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비용 부담</td><td>80%</td></tr><tr><td>기밀정보 유출 가능성</td><td>25%</td></tr><tr><td>외부업체의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td><td>24%</td></tr><tr><td>기관 내부회계 역량 약화</td><td>21%</td></tr></tbody></table>	항목	비율	비용 부담	80%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	25%	외부업체의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	24%	기관 내부회계 역량 약화	21%
항목	비율																				
전문성 확보 및 오류 감소	35%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간 절감	33%																				
회계투명성 강화	22%																				
보조금 및 기부금 정산의 정확성 향상	10%																				
항목	비율																				
비용 부담	80%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	25%																				
외부업체의 신뢰성 및 전문성 부족	24%																				
기관 내부회계 역량 약화	21%																				
[그림 E]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 시 필요한 지원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아웃소싱 비용 지원</td><td>31%</td></tr><tr><td>아웃소싱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td><td>30%</td></tr><tr><td>외부 업체와의 계약 및 운영 절차 가이드 제공</td><td>20%</td></tr><tr><td>아웃소싱 업체 추천 및 연결</td><td>19%</td></tr></tbody></table>	항목	비율	아웃소싱 비용 지원	31%	아웃소싱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0%	외부 업체와의 계약 및 운영 절차 가이드 제공	20%	아웃소싱 업체 추천 및 연결	19%	[그림 F] 외부 회계아웃소싱 도입이 적절한 회계업무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비율</th></tr></thead><tbody><tr><td>세무 및 법률 관련 회계 업무</td><td>37%</td></tr><tr><td>연간 결산 및 감사 준비</td><td>29%</td></tr><tr><td>월별/분기별 결산 및 보고서 작성</td><td>22%</td></tr><tr><td>보조금 및 기부금 정산</td><td>12%</td></tr></tbody></table>	항목	비율	세무 및 법률 관련 회계 업무	37%	연간 결산 및 감사 준비	29%	월별/분기별 결산 및 보고서 작성	22%	보조금 및 기부금 정산	12%
항목	비율																				
아웃소싱 비용 지원	31%																				
아웃소싱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0%																				
외부 업체와의 계약 및 운영 절차 가이드 제공	20%																				
아웃소싱 업체 추천 및 연결	19%																				
항목	비율																				
세무 및 법률 관련 회계 업무	37%																				
연간 결산 및 감사 준비	29%																				
월별/분기별 결산 및 보고서 작성	22%																				
보조금 및 기부금 정산	12%																				